

사 램 사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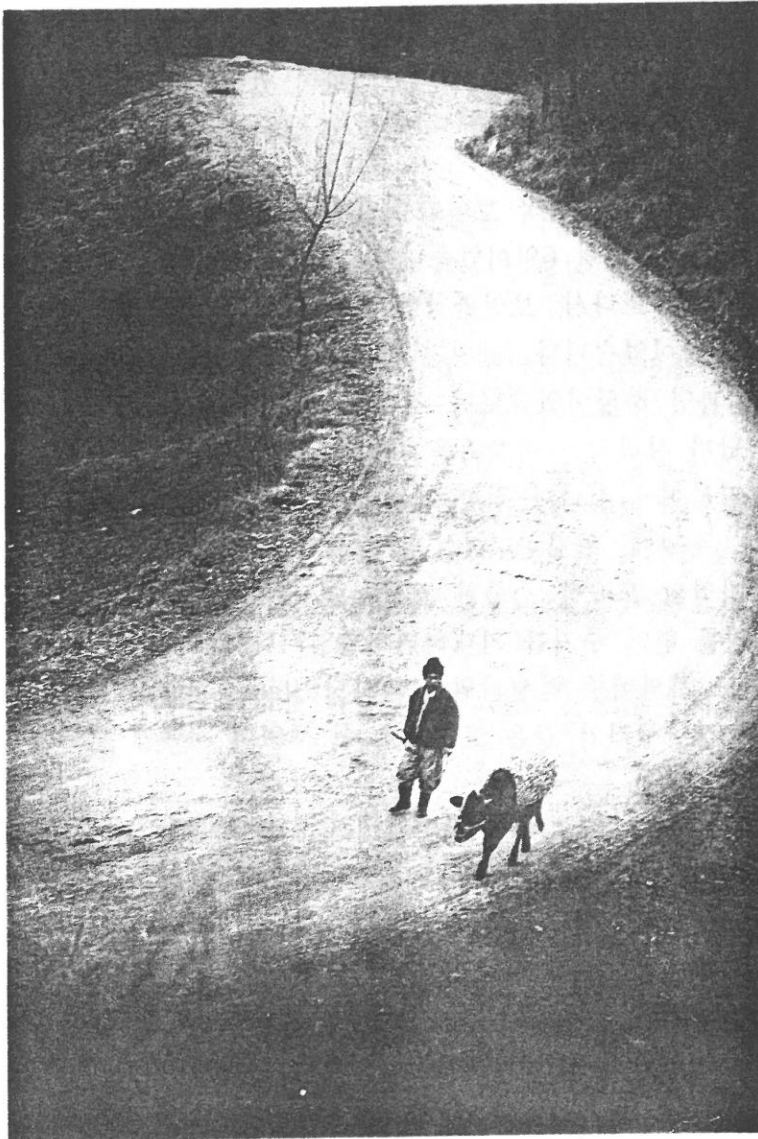
회원통신 제25호(97/1/15)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그 길은
앞에 보일
것입니다.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범국민결의대회가 전국에서 열립니다.

한겨레신문 광고면을 참고해서 반드시 참여합니다.

세 해에 민주화운동의 희망을 느끼며

서준식 대표

밑도 끝도 없이 “보안관찰법 위반사건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저는 어정쩡했던 미국생활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도둑들이 날치기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애틀에 30년만에 내렸다는 큰 눈에 갇혀 동네만을 왔다갔다 하는 답답한 세밑에 저는 바다 건너 조국에서 간간히 흘러오는 엄청난 소식들에 매일같이 울화통을 터뜨리면서 시간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 건가?”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말인가!” “이건 암흑이지 않은가!”

지난 여름부터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커다란 귀국 보따리를 6개나 질질 끌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호놀룰루공항에 내린 것은 1월 6일이었습니다. 기왕에 하와이에 오게 된 것, 귀국하면 어차피 암담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보안관찰법 위반사건’ 조사를 받아야 할 몸인데 며칠 늘어지게 쉬고 보자는 배짱이었습니다. ‘날치기’와 보안관찰법 때문에 우울한 저의 마음에 아랑곳 없는 하와이는 과연 하와이였습니다. 강렬한 햇빛, 원색이 난무하는 거리와 숲들,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름다운 해변들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시원스러운 수평선... 저는 저의 딸들이 잠시나마 접한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의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훗날에, 완강한 ‘현실’의 장벽에 둘러싸인 딸들이 자신의 왜소함을 슬퍼하게 될 때 이 자연의 모습을 소중한 보물처럼 기억의 밑바닥에서 꺼내어 큰 사람으로 일어서기 위한 용기를 얻어 주기를 기대하면서말입니다.

호놀룰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하와이주 하원의원은 의사당(State Capitol) 잔디밭에서 조출한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으로 쉴 새없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이번 항쟁은 굉장하던데 지난 ‘6월 uprising’ 만큼 성공하리라고 보는가?”

“김영삼의 경찰이 명동을 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 때 당신들은 어떻게 대응할 참인가?”

“당신의 인권운동이 이번 uprising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한국인 이름을 한사람 한사람 발음해 보였습니다. ‘김타이중’을 포함한 70년대와 80년대의 기라성 같은 민주화운동의 대명사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이 이번에도 uprising을 지도하고 있는지를. 다소 당혹하면서 고개를 가로젓는 저에게 뜻밖에도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우!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있군요!”

새로운 세대!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시애틀에서부터 차악 갈아앉아 있던 저는 갑자기 밝은 햇빛 아래로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만치 새파란 잔디밭 위에서 열심히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저의 두 딸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귀국 후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행사는 '민주열사 박종철 10주기 추모의 밤'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면 순간 대형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종철아, 다시 일어나 심판하라!'

행사장이 가득 메워진 '추모의 밤', 저는 오래간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와이 주 하원의원이 아슬아슬한 발음으로 거명했던 '기라성들'까지 포함해서 그저 단순명쾌하게 '운동권'으로서 매일같이 얼굴 맞대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뿔뿔이 흩어져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참으로 소식이 궁금했던 그 많은 사람들... 시간이 새겨놓고 간 피곤함이 역력한 그 얼굴들은 한결같이 '종철아, 다시 일어나 심판하라'고 희구하는 듯 했습니다.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를 마친 젊은이들이 추모행사 거의 막판쯤까지 행사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이란 하나도 없는 젊은이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철이가 다시 일어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폭압을 심판하고 있구나..."

정의를 위한 큰 투쟁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 가는 큰 인물은 자라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늙어도 민주화와 정의를 위한 투쟁은 늙지 않는 법입니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을 규탄하며 김영삼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20만 군중이 전국의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경찰력의 명동성당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대검 공안부장은 살벌하기 짝이 없는 상판으로 이번 총파업을 "체제전복을 위한 이념투쟁"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재벌들이 노동법 개악에 모가지를 걸고 있는 만큼 상황은 만만치 않겠지만 결과가 어떤 것이 되든 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서려 있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참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희망을 캐어낼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고 싶습니다.

과거청산 국민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 ◇ 잘못된 과거의 올바른 청산 작업 없이는 미래의 희망은 찾을 수 없습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5.18문제의 올바른 해결뿐만 아니라 5.6공 독재하에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인권유린을 낳았던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 ◇ 과거청산국민위는 5.18범국민위원회와는 달리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소속 단체에서 추천하는 국민위원들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위원은 총회와 각종 위원회에 참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위원은 개인당년 3만원의 회비를 내야 합니다.**
- ◇ 참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오는 24일(금)까지 사무국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15-9185 호출: 015-319-8563**

사 / 업 / 보 / 고

(96년 12월 셋째주부터 97년 1월 둘째주까지)

새해는 조직의 강화 · 기획사업에 치중기로

-사무국 새해 계획 잡기 바빠-

사무국에서는 지난 12월 27일부터 96년 사업평가와 아울러 97년 사업계획을 잡기에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평가로는 지난해의 경우 조직적인 면에서 공격적으로 거듭 내려는 노력이 좌절되었던 뼈아픈 해였고, 이 과정에서 사무국의 활동가들과 일부 운영위원의 탈락이 있었으며, 운영위원회가 거의 와해 직전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자문위원들의 회비 납부 저조 등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인권영화제의 개최와 꾸준한 연대사업, 대학생 인권교육 등으로 인지도가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에게 대한 기대수준도 그만큼 높아졌음도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더욱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 초안을 잡고, 운영위원회에 상정기로 했습니다. 새해 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의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조직- 운영위원회를 재편하여 실질화하고, 자문위원회를 현실화하며,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서두른다.

(2) 재정-수입 · 지출의 효율적인 관리(비영리단체의 경영방식의 극대화), 사업을 통한 재정의 확보, 운영위원과 자문위원들의 재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 해외 프로젝트 등의 적극적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3) 기획-대선에 인권의 요구를 선명하게 부각시키자, 전문가 설문조사 작업, 김정권 인권상황 보고서 작성하며, 이를 각당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이 작업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결합시킨다.

(4) 과거청산 국민위 사업에 주동적으로 결합하자

(5) 사무국을 튼튼한 유기체로 만들자

(6) 각 실별 주요 사업목표

- 인권교육실: 인권교재의 출간과 인권교육의 본격화-대학생 커리큘럼의 안정화
- 인권홍보실: <인권하루소식>의 새로운 편집, 시평의 신설 등 전문지로의 발전
- 인권정보자료실: dB의 완성과 업그레이드, 통신 서비스의 강화, 패키지 사업
- 고문백서 작업(8월까지)
- 제2회 인권영화제(별도의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꾸준한 독자확대와 치밀한 독자관리
- 자원봉사 인력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교육, 조직
- 국제연대 인력의 확보(서울대 대학원 팀, KEEP을 통한 협력 증대 등)

격주휴무제 도입 등 사무국 근무체제 변경기로

사무국은 연말과 연초 토론을 통해서 올해부터 근무체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기로 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은 오전 9시30분에서 아침 9시로 당기고 매일 아침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모임에는 인권하루소식 독회와 매 인권 주제별 토막학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의 꾸준한 성취와 아울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다음날 인권하루소식 내용을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에 올립니다. 그것은 컴퓨터 통신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밤시간을 이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 것입니다.

이런 근무체제의 변경에 따라 사무국 활동가의 월차를 모두 제외하고, 대신 격주 휴무제로 대체기로 한 것입니다.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있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사무국의 활동가 한명을 더 충원하기로 하여 외대 88학번 출신인 김의연씨를 수습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의연씨는 3개월 연수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 12월 23일 송년회 화기애애하게 열려

96년 송년회가 12월 23일 사무실 근처 진미식당에서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기수 선생님 다섯분을 비롯해 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고, 운영위원과 사무국 실무자, 김거성 자문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진미식당의 송년회는 류은숙 교육실장의 사회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는데, 96년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을 고통과 영광의 해로 정리했습니다. 참가자 대다수가 2차까지 가면서 신년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 서대표 가처분신청 승리, 출국 후 가족과 함께 1월12일 귀국

지난달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발이 묶였던 서준식 대표가 12월 19일 서울지법의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승리해 지난달 24일 출국했다가 이달 12일 가족과 함께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서대표는 귀국 직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었던 사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 강경선 교수 오는 27일 귀국

부운영위원장이신 강경선 교수님이 오는 1월 27일 오후 6시경 대한항공편으로 인도에서 귀국합니다. 강 부위원장님은 지난 해 1월 초 방송대 교수로 재직중에 인도 교환교수로 파견되었으며, 가족을 인도에 남겨둔 채 홀로 귀국하게 됩니다.

강부운영위원장님의 귀국으로 사랑방의 활동이 더욱 활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부위원장님의 환영회를 29일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맨 뒷면 참조바람)

- 사무국 신년 단합 여행, 전주 일대로 다녀와

사무국에서는 지난달 27일 인권하루소식 송년호를 낸 직후 사무실 청소 및 정리를 하였고, 27일 김수경 홍보실장의 집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1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 전주와 동학유적지, 내장산 등지로 사무국 단합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무국 사람들은 날치기로 인해서 서울등지에서는 농성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을 하자니 매우 죄스러운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후 보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충전시켜 왔다고 생각키로 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사무실 이사 늦추기로

사무실 이전을 오는 4월께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1월 20일경 이사를 하려 했으나, 마땅한 사무실(실평수 30평,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 물론 위치는 좋아야지요)을 고르려 했으나, 전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사무실을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세들어 있는 건물의 주인이 도저히 1월20일께까지 돈을 만들 수 없다고 하소연하였기에 4월로 늦춘 것입니다. 4월 이사하기 유리한 사무실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께서는 사무국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96년 인권 10대뉴스 선정, 발표

96년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 언론에도 보도가 나갔습니다. 인권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96년 7월-12월)를 2월 초에 발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대위 참가

지난 1월 10일 성공회대성당 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단체 비상시국 연석회의를 계기로 범국민대책위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범대위가 일손이 모자라 하지 못하는 인권사업(국제연대 등) 등을 주로 하기려고 합니다.

- 인권운동대학생연대 사회연수 예정

학생운동조직인 자치운동센터에서 주최하는 대학생사회연수활동이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22일에는 전교조 교권 교사 모임에 서대표와 류은숙 교육실장이 강의를 나갑니다.

- 사무국장을 과거청산 국민위 공동사무국장(반상근)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청산국민위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영화제후원회 소식지 발송; 제1회 인권영화제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개인과 단체들에게 소식지를 만들어 발송하였습니다.

<자료>- 결의문

오늘 우리 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정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는 노동자·서민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패이게 하고 있다. 지난 연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무효화를 요구하며 시작된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해를 넘기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와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파업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근본 책임이 소수 재벌의 이익과 정권의 유지·연장이라는 정략에 얽매어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을 강행한 김영삼정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현재 전국에서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무효화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투쟁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는 그 어떠한 적법성과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권력의 부당한 횡포이다. 따라서 날치기 개악된 악법들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올바른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저항권에 입각한 것으로 정당하다.

현 시국은 국민의 생존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상 시국이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무효화를 끝내 거부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김영삼정권은 이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뜻깊은 6.10 민주항쟁 1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염원을 역행하는 김영삼정권의 반민주적 작태를 심판하는 범국민 운동에 나설 것을 엄숙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결의사항>

1. 우리는 현 시국을 국민의 생존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비상 시국으로 판단하고 날치기 개악된 악법들을 무효화하고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올바른 노동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김영삼정권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폭력적으로 탄압할 경우 민주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김영삼정권의 반민주적 날치기 폭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결집하고 개악된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민주 수호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대선 후보자들을 포함한 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요구하는 범국민 투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는 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질책하며, 민주 수호를 위한 범국민 운동에 즉각 동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1997년 1월 10일

전국 사회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참가단체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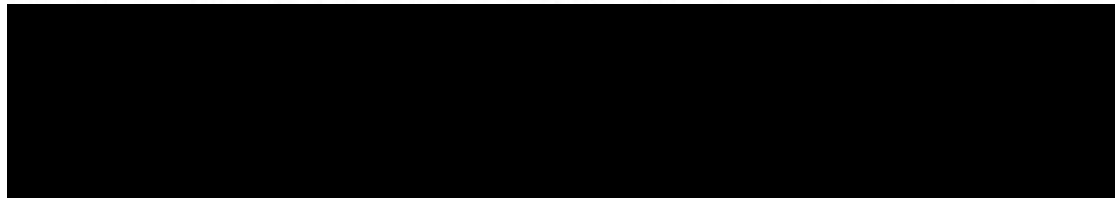
96-12분기 재정보고('96 12/16-1/15)

전기이월 2,870,679원

수 입		지 출	
회비	2,606,400	활동비	4,170,000
구독료	2,115,900	사업비	2,385,400
후원금	739,820	발송비	361,960
사업수익	991,000	사무비품	265,960
은행이자	56,598	사무실유지	902,882
기타수익	400,000	자료구입	110,000
		식대(야근)	181,550
		전화요금	807,468
		사무기기	168,500
		복 사 비	146,810
		기 타	452,000
계	6,909,718원	계	9,952,530원

최종결산 172,133원

<96년 12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표기상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을시 총무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제 34차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때: 1997년 1월 29일(수) 오후 5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안건: 1. 96년 사업 보고

2. 97년 사업계획 수립

3. 범대위 및 과거청산 국민위 활동보고 및 추인

* 운영위원 필히 꼭 참가해 주십시오

◎ 강경선 부운영위원장 귀국 환영회

때: 1997년 1월 29일(수) 오후 7시

장소: 진미식당(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서울역 방향 좌측100m, 전화: 713-2161)

◆ 1년간 떨어졌던 강교수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